

민주당 경선 후보들, 수도권 발전방안 놓고 토론회서 열띤 설전

명종원 기자 입력 2021-10-05 20:00:11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이 수도권 발전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박용진 민주당 경선후보는 5일 오후 5시30분 OBS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수도권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미래 발전 방향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공약을 소개한 기호 6번 추미애 후보는 "대한민국 인구절반 이상인 2천600만명이 사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더욱 쾌적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전략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경기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황해권 시대와 한반도 평화 경제시대를 보장하는 도시국가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후보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 복원과 함께 파주 지역 일대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역(逆)개성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맡은 장점을 강조하며 "북한과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

성하고 세계적 가치를 지닌 DMZ를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시 수도권 주민들의 중요 관심 사안인데 이를 조기에 건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서울과 인천을 글로벌 금융특구로 만들고 문화 관광을 육성, 미래 먹거리로 유명한 마이스(MICE)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돌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께서)발생지처리원칙을 발표했는데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2025년에 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기도에서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대책이 안 나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쓰레기 업무는 도의 업무가 아니고 시군의 업무다. 현재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군 자체적으로 소각시설 많이 짓고 있고 각 시군간 협약을 맺어 매립량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기호 5번 박용진 후보는 수도권 발전 방안에 대해 "김포공항 기능 이전, 스마트시티 20만호 공급, 좋은집 충분공급, 가치성장주택과 임대주거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와 함께 서울 내부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서울은 강남부 격차가 심각한데, 강남에 많은 발전이 이뤄져 온 만큼 수도권 안에서 역차별이 없는 '다함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는 "문제가 발생해온 GTX-D 노선을 재검토하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인천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인천은 공항과 항만 모두를 갖고 있어 송도를 중심으로 백신 허브를 조성,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그는 "수도권과 함께 특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움과 동시에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육성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취약노동자, 소상공인을 위한 40조원 기금을 긴급 평성토록 국회에 요청했듯,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